



## 일본지부 재결성 격려사

변 승 봉

(대한전기학회 회장)

조국의 선진화와 國際化를 위하여 異國땅 日本에서 혹은 學業에 精進하시고 혹은 企業活動을 활발히 推進하시면서도 또다시 學會活動에 同參하신 여러 同志들에게 깊은 감동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祖國에서도 企業體에 계시는 會員들은 여간해서는 學會活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것이 現實이며 大學에 계시는 教授님들께서도 차차로 敎務의 증가로 學會活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더욱이나 外國의 낯선땅에서 허다한 어려움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大韓電氣學會 日本支部의 再建에 參與해주신 會員여러분에게 再三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日本支部는 지난 1988年 5月 11日 文京區의 學士會 分館에서 37분이 모여서 포철 東京사무소장이시던 이영록氏를 支部長으로 선출하시며 出發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年 3월 27일 總會를 열어 새支部長으로 現代重電機 東京支店長이셨던 김수일氏를 뽑아서 1992年까지 活潑한 支部活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993년 김수일지부장의 귀국으로 不幸히도 支部活動이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金斗漢 支部長을 새로 선임함으로써 日本支部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金斗漢 支部長님께서서는 電氣工學科 大先輩님이시고 또한 이곳에 定着하신 교포이심으로 유학중인 學生들이나 企業體의 주재원인 우리支部 會員들의 求心點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金斗漢 先生님 주위에 團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大韓電氣學會는 今年이 創立 50周年이 됩니다. 7月 9日에 서울 科總會館에서 50周年記念式을 개최하며, 7月 6日~10日까지는 서울大 學校에서 ISAP國際大會를 개최합니다. 7月 22日부터는 龍平 Resort에서 50周年記念 夏季學 術大會를 열려고 합니다. 今年에는 1500余名의 會員과 家族들이 모일것으로 기대합니다. 日本 支部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參與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새 支部長이신 金斗漢 先生님 주위 에 글게 단결하셔서, 祖國의 번영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액수이나마 이돈을 日本支部 운영에 보태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3월 24일